

# INRA 가입의 의미와 전망

최윤억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 머리말

세계 원자력 선진국의 안전 규제 기관장들의 모임인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INRA)는 지난 2006년 2월 23일~24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06년도 상반기 INRA 정기회의에서 한국의 회원국 가입을 최종 결정하고, 금년 의장인 프랑스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총국 국장 라코스테가 INRA를 대표하여 3월 15일자 서한으로 이문기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을 정식 회원으로 초청한다고 통보해왔다.

본고에서는 INRA의 역할과 회원 가입 요건과 절차 그리고 우리나라 가입의 의미와 앞으로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고자 한다.

## INRA 개요

### 1. INRA의 역할

1997년 5월에 설립된 INRA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8개 원자력 선진국의 안전 규제 책임자들 간의 비공식적인 국제 협력 협의체로,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 430여기의 운영 중인 원전과 새로 건설될 원전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세계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등 원자력 안전 분야의 국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원자력 분야의 각종 국제 기구 협약이나 주요 국제 회의의 의장을 대부분 INRA 회원들이 맡아왔으며,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의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INRA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 2. INRA 회원 가입 요건 및 절차

INRA의 회원은 원자력 안전 협약을 준수하며 일정 규모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국가의 독립된 원자력 규제 기관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가입 희망국은 이러한 회원 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INRA 의장 명의로 제시되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질의 내용은 주로 규제 기관의 독립성과 규제 기관의 구조, 기능 및 권한 등에 대한 것으로 통상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제출된 답변에 대해 정기 회의에서 공동 검토하고 내부 토의를 거쳐 신규 회원 가입 여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회장 명의로 초

\* 본 '특집'은 지난 4월 24일에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최한 「2006년 제1차 원자력안전포럼」 중 '제3세션'으로, 본지 5월호에 게재한 '세션 I' '세션 II'의 후속이다. (편집자)

청함으로써 해당 규제 기관장의 가입이 확정된다.

### 3. INRA 회의 운영 방식

INRA는 별도로 상설 사무국을 두지 않고 회원국들이 번갈아 의장국 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의장국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고, 회원 1명과 회원이 지정하는 보좌관 1명 등 총 2명만 참석이 가능하며,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회의는 솔직하고 공개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회의 의제도 형식적이고 성공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것을 위주로 채택하며, 회의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INRA 회원 현황

2006년 5월 현재 INRA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총 9개국, INRA 회원은 일본의 2명 동시 가입으로 인해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회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총국(DGSNR) 국장 Andre-Claude LACOSTE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 Nils DIAZ
-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위원장 Linda KEEN
- 영국 원자력시설검사기관(NII) 검사총장 Mike WEIGHTMAN

-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NISA) 원장 Kenkichi HIROSE
-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NSC) 위원장 Shojiro MATSUURA
- 독일 원자력안전·폐기물관리·방사선방호국 국장 Wolfgang RENNEBERG
- 스페인 원자력안전위원회(CSN) 위원장 Maria-Teresa ESTEVAN
- 스웨덴 원자력발전검사기관(SKI) 국장 Judith MELIN
- 한국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국장 Mun-Ki LEE(이문기)

### INRA 가입 추진 경과

한국은 INRA 설립 준비 단계인 1996년부터 INRA 결성을 위하여 당시 미국 NRC 위원장 Sherley Jackson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준비 회의에 참석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러 국가들의 한국의 원자력 발전 규모, 안전 규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괴리 등으로 가입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간 한국은 원자력 발전 시설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원자력 국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및 규제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부터 INRA는 내부적으로 회원국 확대 방침을

세우고, 원자력 규모 및 기술력을 기준으로 한국의 신규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또한 이를 기회삼아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을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양자 간 원자력 협력 활동을 펼친 끝에 드디어 2006년 INRA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게 되었다.

### INRA 가입의 의미와 기대 효과

금번 한국의 가입은 INRA 설립 후 10여년 동안 닫혀 있던 문호를 최초로 대외에 개방하였다는 데 우선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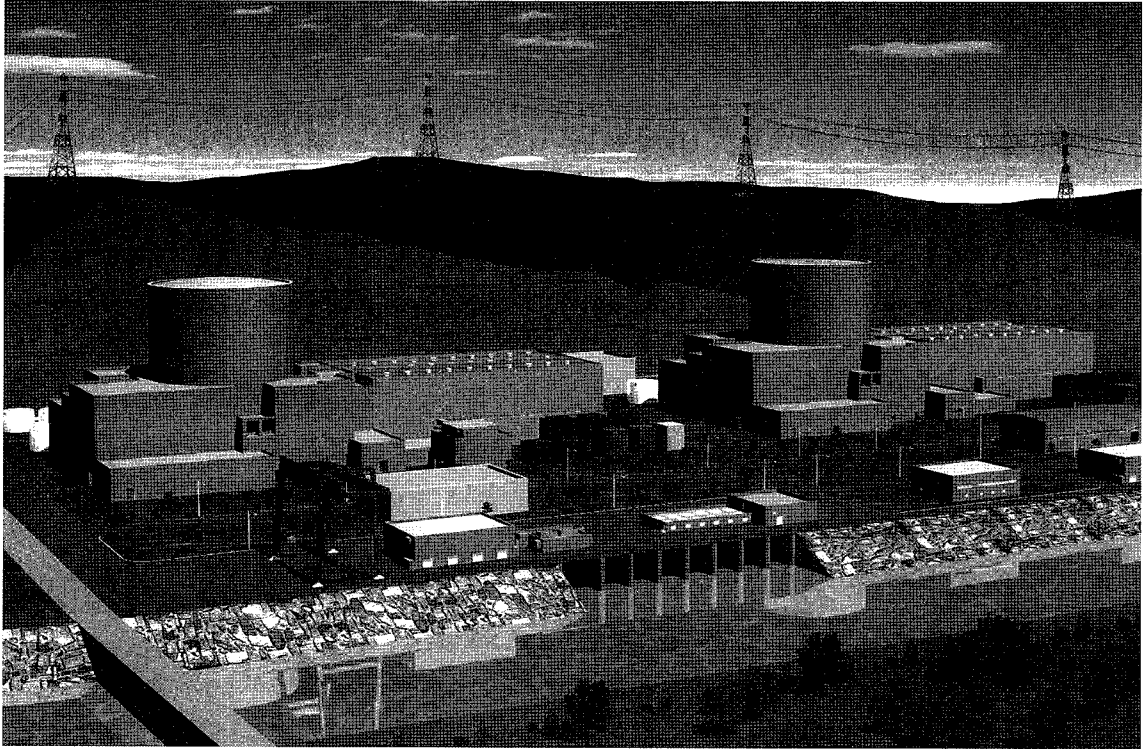
또한 이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수준을 원자력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 원자력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를 통해 명실 공히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원자력 안전 규제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INRA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독일·스페인·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수적으로 한국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노력과 핵투명성 홍보를 위한 국제 교섭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RA 가입은 비공식적이고 규제 기관장 간의 협의체기는 하나 회원국들간 실질적인 대화 채널이 확



우리나라는 향후 INRA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독일·스페인·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수적으로 한국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노력과 핵투명성 홍보를 위한 국제 교섭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회원들 간 의견 교환 및 회원국 간 긴밀한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기술의 한층 성숙된 질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의 INRA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이 협의체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각종 국제 원자력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 및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한국인의 원자력 국제 기구 고위직 진출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계획

한국은 금년 9월 25일 ~ 27일 간 프랑스 아비뇽에서 개최될 2006년도 하반기 INRA 정기 회의에 최초로 참가하여 현안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회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 및 규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회원국의 규제 기관장들을 차례로 한국에 초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년 10월 중 프랑스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총국 국장 Lacoste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2006년 프랑스 및 2007년 스페인에 이어 2008년 의장국을 한국이 맡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 의장국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